

KIA 하준영, 좌완 비밀병기 주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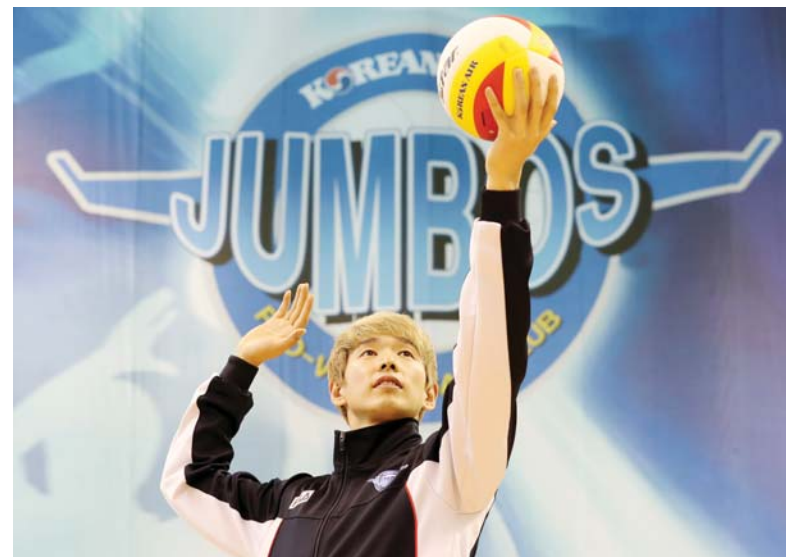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 좌완 하준영이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비밀병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KIA는 좌완 불펜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년 필승요원이었던 임기준이 어깨 통증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최근 많이 나아져 다행이지만 풀타임 활약은 불투명하다. 하준영이 좌완 필승맨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하준영은 지난 11일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진가를 드러냈다.

선발 한승혁(20이닝 무실점)의 바통을 이어받아 20이닝을 3개의 탈삼진을 곁들여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구의 최고 구속은 144km를 찍었다. 야쿠르트의 데이블세터진과 4번타자를 보기 좋게 삼진으로 돌려세운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대진 투수코치는 "현재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한 투수 가운데 하준영이 가장 구위가 좋아졌다. 제구력을 비롯해 직구의 스피드, 변화구의

이대진 "오키나와 캠프 투수 중 구위 가장 좋아" 하준영 "작년 경험·여유 부족...올해 자신감 ↑"

구사력에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축 불펜요원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준영은 삼남고 출신의 고졸 2년 차 투수이다. 2018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2번으로 낙점을 받았다. 작년 15경기에 출전해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9.20을 기록했다.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성적이었다. 그러나 첫 경기인 6월 16일 LG와의 잠실경기에서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았다. 특히 박용택을 우익수 뜬 공, 김현수를 포수 파울플라이로 낚았다. 첫 등판에서 구속이 147km를 찍었다. 동기선수들인 삼성의 양창섭, 두산의 곡빈 등에 비해 뒤늦은 데뷔전이었지만, KBO리그의 간판타자들을 제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치며 가능

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실점이 잦아지면서 경험 부족과 프로의 높은 벽을 느꼈다. 하준영은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변화구도 좋아지고 제구력도 나아졌다. 특히 직구의 스피드가 높아져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44km를 기록했는데 시즌에 들어가면 더 빨라질 것 같다. 작년에는 직구 평균이 141~142km 정도 나왔다. 올해는 143~144km까지 높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년 차의 목표도 뚜렷하다. 1년 내내 1군에 남는 것이다. 하준영은 "작년에는 경험도 없었고 여유도 부족했다. 올해는 여유가 많이 생겼고 자신감도 있다"며 "올해는 1군에서 보다 많은 경기를 해야 한다. (불펜요원으로 나선다면) 임기준 선배처럼 50경기 이상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쓰러질 때까지 뛰는 것이 선수”

대한항공 한선수, 팀 고공비행 이끌어...국내 최고 세터

대한항공의 '코트 위 마에스트로'는 세터 한선수다. 국내 최고 세터로 꼽히는 한수는 팀 내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팀의 고공비행을 이끌고 있다. 워낙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에 휴식은 안감생삼이다. 특히 요즘 같이 1년 농사가 결정될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은 이런 한수만 보면 걱정이 앞선다. "저의 한계에 도달했다. 쉬게 해줘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다"면서 "6라운드 마지막까지 버텨야 한다. 감독으로서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수는 18일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전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규리그 우승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 한수가 빠질 리 없었다. 한수는 명성에 걸맞은 활약으로 팀의 세트스코어 3-0(25-20 25-19 28-26) 완승을 이끌었다. 현대캐피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리시브를 등에 업은 한수는 공격수 입맛에 맞는 배달로

특점을 이끌어냈다. 서브 또한 일품이었다. 전광인의 다이빙을 유도하는 짧은 서브로 현대캐피탈의 한쪽 측면을 무너뜨린 뒤 파다르를 집중 견제해 공격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작전은 수차례 적중했다. 한수는 "(정)지석이의 몸이 안 좋았는데 (곽)승석이 잘해줬다. 레프트에서 끌어줘서 경기가 쉽게 갔다"고 말했다.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전수들 다 힘들다. 6라운드에 오니 다들 힘들 수밖에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떨어진 체력은 금정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즐거게 될 생각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야 힘든 것도 없진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어 한수는 "최대한 뛰어다닐 생각"이라면서 "쓰러질 때까지 뛰는 것이 선수"라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린 대한항공은 승점 62(21승10패)를 기록, 우리카드(승점 60·19승12패)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모태범, 스케이트 대신 자전거 탄다

경륜선수 후보생 입학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이 경륜선수 후보생으로 새 출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14일 경상북도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제2기 경륜선수 후보생 입학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입학식에는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장유현 영주시장, 이종호 영주시의회 의장, 이상혁 스포츠위원장, 박영명 강원경륜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후보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엔 입학한 경륜선수 후보생은 3차수에 걸쳐 진행된 선발 시험을 모두 통과한 23명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모태범도 23명의 후보생에 포함됐다. 지난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그는 경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개인도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경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



모태범이 제2기 경륜선수 후보생 입학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시안게임 남자 스포린트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임채빈도 후보생으로 입학했다. 아마추어 사이클 선수 출신 19명, 비선수 출신 4명으로 이틀 간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후보생들은 입학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경륜선수가 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받게 된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경륜의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삶의 자세와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 한 명의 나오자 없이 경륜 선수로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길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SK 김광현, 첫 라이브 피칭에서 145km

SK 와이번스 김광현(31)이 첫 라이브 피칭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광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스포팅캠프에서 첫 라이브 피칭을 했다. 직구 14개, 슬라이더 3개, 커브 3개 등 총 20개를 던졌고, 최고 구속은 시속 145km를 찍었다. 김광현은 "오랜만에 라이브 피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캠프전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피칭을 통해 직구와 변화구를 던져봤는데 직구는 지난해 이맘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 커브는 제구를 잡는 것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광현을 지켜본 손혁 투수 코치는 "첫 라이브 피칭인데 투구 동작, 밸런스 구위 등이 전체적으로 좋았다. 특히 힘 있는 직구와 커브의 무브먼트가 돋보였다"며 "커브가 스트라이크존에서 높게 형성되었는데, 커브의 컨트롤을 가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면 완벽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초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김광현은 복귀 첫 해였던 지난해 25경기 136이닝 11승8패 평균자책점 2.98을 기록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2경기 7이닝 무실점의 투수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뉴시스

호주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세계랭킹 8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역대 개인 최고 세계랭킹인 8위에 올랐다. 고진영은 19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두 계단 상승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최고 순위다. 고진영은 17일 끝난 호주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벨리 코다(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코다는 17언더파 271타를 쳤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실패했지만 준우승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신인 이정근(23)은 세계랭킹 20위를 유지했다. 자신의 투어 데뷔전인 호주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 공중 10위로 신고식을 치렀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진성,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연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